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4. 1.(월) 배포 즉시

지속적으로 외국인력의 안전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4. 1.(월) 한겨레, 화상재해 비율, 이주노동자가 8배 높다고?

> ㅇ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들의 화상 재해 비율은 4.8%로, 전체 노동자의 화상 재해 비율(0.6%)보다 8배나 높다.
> ㅇ 직무·안전 교육 부재를 화상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. (중략) 충분한 안전 장비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. (후략)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**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**라는 기조 아래,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**현장으로 향하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적극 추진**하고 있음

□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**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·점검을 실시**하고 있으며,

ㅇ 올해는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**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,500개소로 대폭 확대**하여 **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·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**할 예정임

□ 또한,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적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, **안전보건자료 및 교육 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**하여 **사업장 및 송출국에 지속 제공하여 교육**하고 있음

* 온열질환 가이드,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재 등을 재해다발 국가의 언어로 제작(23년)
→ 위험기계기구·화학물질 안전수칙 OPS 및 동영상 등 190종을 번역·제작 예정(24년)

ㅇ 고용허가제(E-9)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송출국 현지에서 사전 취업교육 시 **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안전 사례 교육을 실시**하고 있으며,

○ 입국 후 의무 취업교육 총 16시간 중 3시간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, **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 대상**으로도 **안전 교육을 의무화**하고 있음

□ 특히, 올해부터는 '23년부터 시작한 체험형(VR, AR 등) **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**하고, 고위험 업종인 임업·광업은 별도의 교육기관*을 통해 **안전·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(4주)을 추진**할 계획임

* (예) [임업] 임업인종합연수원(청송) [광업] 광산안전센터(태백), 마이닝센터(익산)

□ 또한,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상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**주한외국공관에 산재신청 대리권을 부여**하고, **다국어 산재결정 통지서**를 **발행**하는 등 **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**해나가겠음

* (신청단계)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재 미신청 외국인근로자 대상 국적별 모바일 신청 안내
(승인단계) 국적별 언어 제작 '요양절차 및 각종 급여 청구절차' 안내 메시지 발송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희준 (044-202-8804)
		담당자	사무관	김철수 (044-202-8805)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기환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희 (044-202-773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